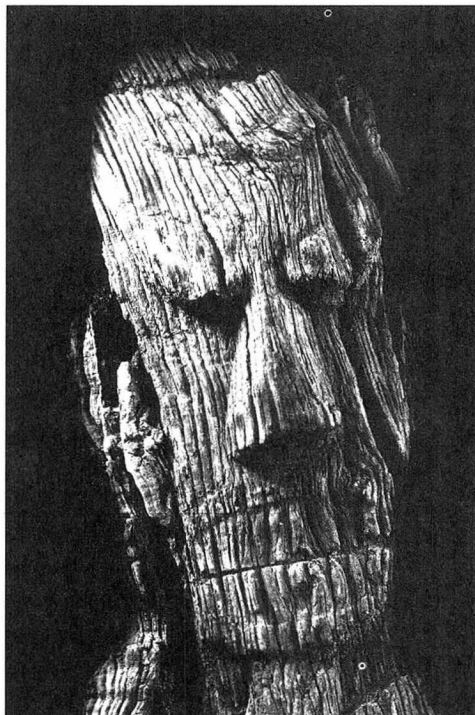


# 한국의 미를 찾아서

## 《육명심》



· 모진 풍파를 견디며 마을 어귀를 지켜온 나무 장승. (왼쪽)  
· 검은 모래 속에 몸을 담그고 흠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는 노인. (오른쪽)

나무 장승들의 갖가지 표정에는 해학과 웃음, 그리고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가 배어났다. 악귀를 쫓는 지킴이로, 허기진 삶을 관조하는 상징으로 생활 한권을 차지

하고 있던 장승들은 마모되고 쓰러져도 민초들의 마음 속에 영속하는 세월의 이끼로 자리한다. 마을의 길흉을 점지해주던 무속인 역시 민초들의 생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항상 영멸의 고통이 가까이 다가와 있던 시절에 그들은 삶의 위안이었다. 하지만 고목 뒤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는 새끼 무당의 애잔한 얼굴은 무속인 뿐만 아니라 민초들의 힘겨운 삶을 대변한다.

육신이 늙어 삶의 영욕을 버릴 때쯤 되면 주름진 얼굴 뒤에 해탈의 미소가 흐른다. 건을 쓰고 늘어서 있는 노인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노승들, 길 잃은 나그네의 동반자 벽수(돌장승)들의 얼굴에서 무던히도 견뎌온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발을 갈며 살아온 노인들과 검은 모래(‘모래’의 제주 방언)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흠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는 자연의 섭리를 느끼게 한다. 땅에서 자라고 땅으로 돌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영혼을 위한 잔치가 현대적 영상 속에 녹아든 것이다.

지독히 한국적 미를 추구했기에 ‘국수주의자’라는 견명찍은 소리까지 듣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것에 대한 미적 추구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다. 흑사육하는 장면만 모아 《검은 모래 뜬》(1997, 장산출판사)을 펴내기도 했던 그는 서울예전 사진학과, 중앙대·홍익대 대학원에서 사진학을 강의하며 개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 오완진 기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화두를 끌어안고 한국적 사진 미학을 주창해온 육명심(65). 회갑연을 기념해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준 사진집 《육명심》(1994, 사진예술사)은 우리 것을 현대적 감각으로 담아내려는 사진작가의 끈질긴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사진계에서 누구보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진집 어디에도 이력서 한토막 붙어 있지 않는 것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고집스런 ‘지적 오만’을 증언한다.

모진 풍파를 견디며 마을 어귀를 지켜온

# 출판저널

통권 제235호 / 1998년 5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얏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매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합철본을 제작, 한층 자료 가치가  
높아진 합본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

- 합본1호 (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 (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 (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 (날권31~40호) 5,000원(·)
- 합본5호 (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 (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 (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 (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 (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 (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에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전화·서신 등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본호 구입시 우송료는 수취인 부담이므로 본사를 직접 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

## 출판저널

#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 1년분(22호) 40,000원
- \* 반년분(11호) 22,000원

### 표지고민?

디자인 예원이 있습니다  
T.5448-5420,  
F.3444-1515



표지디자인, 광고디자인, 정기 간행물 등  
출판과 관계된 모든 작업  
... 디자인 예원